

VGA·DVD분야 대폭 강화

가산전자

멀티미디어 보드전문업체인 가산전자는 가전 등 신규분야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98년 사업계획을 최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가산전자는 지난해 10월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팀제를 새롭게 도입, 운영하면서 주력사업인 VGA 및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제품군의 지속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인 가전과 통신부문의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산전자는 이에 따라 3차원계입 및 그래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고성능 VGA카드인 「블리츠 시리즈」를 이달 말에 출시하고, TV수신 및 DVD 재생기능 등을 갖춘 통합 VGA보드인 「원X 퍼펙트Ⅳ」 등을 오는 3월경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IMF시대를 맞아 가격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저가형 VGA카드를 추가로 개발해 올 상반기중에 공급키로 했다.

가산전자는 DVD부문의 경우 기존 DVD보드인 「재민 DVD시리즈」에 기능을 강화시켜 하나의 보드에 위성수신기능 및 DVD 재생기능을 통합, 다채널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한 제품을 잇달아 개발해 오는 7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98년형 탱크냉장고 “냉기그물”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는 대형냉장고의 수납성을 극대화하면서 냉장고의 기본기능인 온도유지 및 균일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탱크냉장고 냉기그물(모델명 : FRB-5460CB/6360NB)”을 개발, 14개 모델을 본격 출시한다.

총 연구인력 24명, 개발비 42억원을 투입, 3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대우전자 “냉기그물”은 그간 대우만의 독자기술로서 국내 외에서 HIT상품으로 인정받은 3면입체냉각을 기술적으로 더욱 향상시킨 상품으로써 기존냉장고의 냉기분사형태가 방사형이던 것을 냉장실내에서 그물망 형태를 형성토록하여 냉장실내 온도의 균일성을 0.36℃로 유지, 기존에 비해 4배가 향상되었으며, 신선보관 영역이 국내 최대인 90%나 되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냉기그물냉장고는 식품을 장기간 보관시킬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운영시 온도변화정도가 기존냉장고 보다 10배나 향상된 ±0.27℃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온(定溫)냉장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냉장실 전면부에 별도의 특수팬으로 구동시키는 에어커튼을 장착하여 문을 열 때에도 정온 및 균일냉장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전자는 “냉기그물” 냉장고의 탁월한 온도균일도 및 정온기능 채용으로 온도변화에 민감한 육류보관시 산가증가율을 50%억제 시키며, 상하기 쉬운 두부의 보관가능일은 기존대비 2배 연장된 9일 보관이 가능하는 등 식품 신선 장기보관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다.

2.5kg 노트북PC 출시

대우통신

대우통신은 올해 노트북 PC 주력모델로 두께 38mm, 무게 2.5kg의 초경량 제품시리즈를 개발,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대우통신이 3일 첫 선을 보인 노트북 PC(모델명 CN530)는 12.1인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를 채택한,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제품으로 3.5kg대의 기존 제품들보다 무게를 1kg가량 줄여 휴대성과 편리성을 크게 도모했다.

이 노트북PC는 펜티엄MMX 166MHz 프로세서와 32MB 메모리, 2GB HDD를 갖추고 있는 기종(모델명 CN530-1G407)과 펜티엄 MMX 150MHz 프로세서와

16MB 메모리를 갖추고 있는 기종(모델명 CN530-XG307) 등 2개 모델이다. 대우통신은 1월 중순께 무게 2.5kg의 13.3인치 TFT LCD를 채택한 고성능 노트북 PC(모델명 CN550)도 내놓을 예정이다.

맥킨토시용 DVD보드 첫 개발

두인전자

두인전자는 IBM호환 PC는 물론 맥킨토시 기종과도 호환이 가능한 맥킨토시용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보드인 「쿨 DV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에 두인전자가 개발한 「쿨 DVD」는 미국 C큐브사의 DVD 디코더 칩세트인 지바칩을 채택해 그래픽카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MPEG2 비디오, 돌비 디지털 사운드, 복사방지기능 등 DVD의 표준사양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멀티언어 및 멀티자막의 지원은 물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케일러를 내장해 DVD화면의 오버레이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두인전자는 그래픽과 DVD 비디오 데이터를 모니터에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방식을 자체개발해 일반 PC용 DVD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PCI버스의

대역폭 문제를 해결했다.

두인전자는 맥킨토시용 「쿨 DVD」를 미국 애플컴퓨터사의 고성능 파워맥킨토시 「G3」 및 「4400」 시리즈의 옵션카드로 이달말부터 미국 현지법인인 엘레시드(E4)를 통해 미국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인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맥킨토시용 DVD보드는 맥킨토시 사용자를 위한 DVD 업그레이드 키트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돌비 디지털음향과 MPEG2 고화질로 사용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계 PC시장에서 15%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맥킨토시 기종의 판매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휴대폰망 이용 양방향 삐삐

맥슨전자

무선호출(삐삐)망 대신 아날로그 휴대폰망을 이용한 양방향 삐삐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됐다.

맥슨전자는 아날로그 휴대폰망을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음성·단문메시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삐삐(모델명 RT800)를 개발하고 올해 70만개 1억5백만 달러 어치를 수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삐삐는 14분의 대용량 메시지 저장기능을 비롯해 음성메모 녹음기능, 배터리 재충전기능, 최대 30개까지의 그룹호출기능, 긴급호출기능 등을 갖췄다.

특히 이 삐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망에 「보이스 서버」라는 장치를 기지국에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을 1.3대 1로 압축하는 동시에 8kbps급으로 송신할 수 있어 기존 삐삐의 처리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송신 메시지도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맥슨전자는 이 양방향 삐삐를 개발하면서 양방향 음성호출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레디컴사와 제휴했다.

V칩내장 TV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각종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해주는 「V(Violence)칩」을 내장한 TV를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초 V칩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의 트라이비전 일렉트로닉스와 V칩 내장형TV 개발에 착수한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동계 CES에 V칩을 내장한 29인치 컬러TV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삼성전자와 트라이비전사가 공동개발한 V칩 내장형TV는 「필드 컨피규레이션(Field Configuration)」방식을 적용해 국가별 또는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는 시청등급 시스템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확장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V칩 내장형TV를 개발하기 위한 양사의 공동프로젝트는 트라이비전사가 로직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칩으로 전환해 TV에 내장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앞으로 양사는 세트톱박스나 VCR, TV수신용 PC카드에 채용할 수 있는 V칩과 이를 채용한 상품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V칩을 채용한 컬러TV를 멕시코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이며, 트라이비전사와 현재 V칩 및 이를 채용한 파생상품에 대한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이다.

포켓PC '첫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공동으로 초소형·초경량의 포켓(윌렛)PC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장 강호

문전무와 필립스 엘런소시 총괄부사장은 그동안 공동 개발해온 포켓PC 「인포기어(InfoGear)」에 대한 생산·판매계약을 맺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동계CES에 첫선을 보인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삼성전자가 「인포기어」의 생산을 전담하고, 각자 판매를 담당키로 하는 등 세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키로 했다.

「인포기어」는 가로 84mm, 세로 134mm, 두께 20mm이면서 무게가 110g으로 셔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초소형·초경량 PC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CE 2.0(그리폰) 운영체제(OS)를 채택, 기존 윈텔PC와 호환이 가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3.77인치의 액정표시장치(LCD)를 사용한 이 제품은 또 필립스의 32비트 명령단축형 RISC칩을 탑재해 데이터 처리가 빠르며 포켓PC의 단점인 메모리 확장 등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키보드 없이 음성과 펜 등으로 입력하는 이 제품은 한손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핫키와 인터넷 탐사버튼을 적용했으며, 음성녹음·문자인식 등의 정보 입·출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기본적인 전자우편 기능의 입출금관리와 은행계좌 관리, 각종 카드관리 및 기타 자산관리 등 제

무관리 기능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장착했으며 문자메세지 서비스기능도 갖췄다.

삼성전자는 오는 5월부터 「인포기어」를 양산해 이동중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정보검색만을 주로 하는 보조PC 구매희망자와 핸드헬드PC(HPC)보다 휴대하기 쉽고 저가의 플랫폼을 원하는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국내외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32M 싱크로너스 마스크롬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핸드헬드PC 등 차세대 휴대형 정보통신기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초고속 롬(읽기전용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개발,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기존 롬 반도체의 정보처리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싱크로너스 방식의 32M 마스크롬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싱크로너스 마스크롬(SM)롬은 정보통신기기의 고속화·소형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롬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한 고부가가치 반도체다. 특히 칩 자체의 크기를 기존 롬의 85% 수준으로 줄이고 전기적 간섭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을 뿐 아니

라 한 번의 명령으로 최대 256비트까지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사용된 롬은 램에 비해 데이터 처리속도가 크게 떨어져 정보기기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롬과 램에 저장된 정보를 각기 다른 경로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로가 복잡해지고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SM롬은 D램 수준의 고속 정보전송은 물론 전용 정보전송 경로가 필요없도록 설계돼 향후 개인정보단말기(PDA)나 핸드헬드 PC 등 휴대형 정보기기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롯형 트랜스포머 개발

삼화텍콤

트랜스포머 전문업체인 삼화텍콤은 최근 생산공정을 완전자동화하고 제조공정을 대폭 간소화해 제조원가를 기존 「Layer」타입의 트랜스포머에 비해 20% 낮은 슬롯(SLOT)타입의 트랜스포머를 개발, 공급에 나섰다 밝혔다.

삼화텍콤이 최근 개발한 슬롯타입의 트랜스포머는 와이어 사이를 절연테이프를 절연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보빈 자체에 칸을 뒤와

이어간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절연방식을 채택, 각종 테이프를 비롯한 소요자재를 줄이고 제조공정을 대폭 간소화한 제품이다.

유럽업체들을 중심으로 TV·VCR용으로는 사용되고 있으나 TV나 VCR용에 비해 훨씬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모니터용으로 개발, 상용화되기는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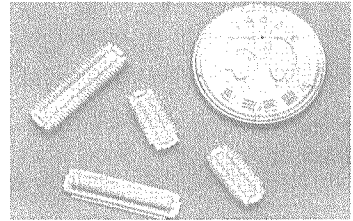
삼화텍콤이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특히 권선공정을 비롯해 검사공정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 품질균일화를 실현하고 중국에서 가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제품보다 제조원가를 20%나 크게 절감했다.

삼화텍콤은 오는 3월까지 14, 15인치 모니터용과 21인치 모니터용 제품도 추가개발해 제품종류를 3종으로 확대하고 라인필터를 비롯한 모니터용 코일부품 일체를 모델별 키트로 구성, 코리아데이타시스템(KDS)을 중심으로 삼성전자·한솔전자·LG전자 등을 비롯한 국내 모니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0.5mm 협피치 커넥터 국내 최초로 국산화

신안전자

신안전자는 국내 처음으로 0.5mm



협피치 커넥터를 국산화해 국내 통신단말기 업체들에게 시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0.5mm 협피치 커넥터는 개인휴대통신(PCS)·휴대폰 등 통신단말기용 키보드와 메인보드를 연결시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신안전자가 지난해 4월 개발에 착수해 이번에 국산화된 제품은 20핀에서 60핀을 갖춘 4가지 모델로 핀간 간격이 0.5mm로 기존의 0.8mm 제품에 비해 크기가 4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높이도 2.5mm에서 3.5mm에 불과, 4.5mm에서 6.5mm였던 기존 제품보다 40% 이상 낮아져 통신단말기의 경박단소화를 가능케 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0.8mm 제품에 비해 절연저항값은 다소 떨어지나 접촉저항값이 동일해 전기적 특성을 충분히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하우징재료로 「나일론 46」을 사용, 290도까지 녹지 않아 내열성이 우수하다. 기존 제품에는 「나일론 66」이나 「PBT」재질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내열온도가 230도로 낮은 편이었다.

신안전자는 이 제품을 월 40만 개씩 생산해 국내 통신단말기 업체들에게 공급, 국내 총수요량의 50% 정도까지 수입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초소형/고집적 Stack 패키지 개발

LG반도체

LG반도체는 같은 크기에 4배의 기억용량 집적이 가능한 초소형 Stack 패키지(D2 CSP : Double Density Chip Scale Package)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적용한 양산제품을 올 6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2 CSP 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 양산기술로 적용되고 있는 최소 패키지인 TSOP 타입의 일반 메모리모듈 4개의 용량을 1개의 모듈로 집적시킬 수 있는 차세대 패키지 기술이다.

원리는 TSOP보다 면적과 두께를 절반이하로 축소시킨 BLP 패키지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두개의 칩을 적층(Stack)함으로써 같은 부피에서 4배의 메모리용량을 실장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BLP(Bottom Leded Plastic Package)는 반도체에서 전원공급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외부의 리드(LEAD)를 제거하여 칩면적과 두께를 절반이하로 축소시킨 패키지 기술로 LG반도체에서 자체기술

로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다.

D2 CSP는 초소형, 고집적의 장점으로 노트북과 같은 휴대형 제품에 최적의 패키지 기술로 평가되며,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 제품에서도 시스템 설계를 한층 쉽게 해준다.

또한 돌출된 외부리드(LEAD)가 없는 BLP의 특성상 적층이 간편하고 전기적인 신호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TSOP 또는 TSOJ의 적층과정에 비해 ▲비용은 1/4 ▲생산성은 3배 수준이며, ▲전기적 특성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 고속DRAM에 유리하다.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개발

LG정보통신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업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들 컴퓨터를 한데 연결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최근 LG정보통신은 ATM스위치(모델명 : LG - CellMaster)와 LAN스위치(모델명 : LG - Ethermaster) 등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로 활용되는 스위치 장비 2개 모델을 개발, 3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LG정보통신이 개발한 ATM스위치(모델명 : LG - CellMaster)는 LAN(근거리통신

망) 구성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더넷(Ethernet)보다 수배 빠른 155Mbps 전송속도를 제공, 방대한 양의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총 2.5Gbps에 달하는 풍부한 스위칭 용량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단말기와 단말기간 연결을 원활히 유지시켜 주는 첨단장비이다.

특히 LG-CellMaster는 스위칭 기능 외에 프로토콜이 다른 LAN이나 WAN의 상호 접속시 데이터를 알맞는 크기의 패킷으로 만들어 최적의 경로로 내보내는 라우팅 기능까지 갖춰, 기업 등의 사용자로 하여금 비싼 추가 설치비용과 운영비를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LAN스위치(모델명 : LG - EtherMaster)는 일반 스위칭 기능 외에 ATM 백본망과의 연동을 가능케 하는 ATM-LAN 접속 프로토콜 'LAN Emulation'을 내장, 사용자에게 이더넷 같은 일반 네트워크 상에서도 고속의 데이터 전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클러치 없앤 전자동 세탁기 세계 최초로 개발

LG전자

LG전자가 세계시장을 겨냥해 클러



러치를 없앤 전자동 세탁기인 「터보드럼」(모델명 WT-A100R·WT-A10W)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터보드럼」 세탁기는 세탁기 고장의 주요 원인인 클러치 대신 세탁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회전속도를 자동전환하는 모터를 회전판 일체형 세탁통에 직접 연결한 새로운 개념의 전자동 세탁기다.

LG전자는 이로써 모터와 벨트, 클러치 등으로 연결돼 에너지 낭비와 소음 발생은 물론 세탁판의 회전으로 빨랫감이 엉키고 손상되는 기존 세탁판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통을 수직으로 세워 수평으로 된 세탁통이 회전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용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드럼 방식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측은 「이번에 개발한 세탁 방식은 기존의 세탁판·드럼·봉 방식의 장점만을 두루 모은 한 차원 높은 세탁 방식」이며 「기존 제품에 비해 영김현상을 68% 정도 개선한 것은 물론 세탁 성능 16%, 고른 세탁 38%, 소음 16%의 개선을 이뤘다」고

말했다.

원주커넥터형 근접센서 개발

LG하니웰

LG하니웰이 고가의 외산 근접센서와 경쟁할 수 있는 원주 커넥터형 근접센서(모델명 HP3)를 개발, 판매에 나섰다.

근접센서는 공장자동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어부품으로 검출물이 일정거리에 이르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켜 다른 공정을 수행하도록 제어해주는 전자부품으로 정밀성이 생명이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기존 케이블형에 비해 본체와 케이블이 분리된 커넥터를 이용해 설치가 간편함은 물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검출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고 방수 등 내구성이 강하며 각종 보호회로를 내장해 수명을 배가시켰고 적색의 동작램프를 설치해 동작의 이상유무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했다.

TFT LCD용 컬러필터 양산

LG전자

LG전자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

장치(TFT LCD)의 핵심부품인 컬러필터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6백억원을 투자, 구미의 제2공장에 월 4만장 규모의 양산설비를 갖추고 이달부터 12.1인치급과 13.3인치급의 컬러필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산에 들어가는 컬러필터는 컬러액정표시소자를 만들기 위해 일정한 순서로 적·녹·청색의 화소가 배열돼 있는 기관으로 액정표시장치의 하판 또는 상판에 장착된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컬러필터를 양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TFT LCD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장 가동이 초기인 점을 감안해 생산 수율의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 14인치급 이상의 컬러필터도 자체 개발, 생산하는 등 컬러필터의 생산 모델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카오디오용 서라운드 모듈

태봉전자

카오디오용 튜너 전문업체인 태봉전자는 순수 국산서라운드 기술인 「3S」 기술을 적용해 차안에서

도 입체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을 개발, 카오디오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밝혔다.

이 모듈은 튜너 출력부와 앰프 입력부 사이에 있어 음을 분리함으로써 일반 카오디오로도 입체음향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서라운드 효과를 위해 일부 고급 카오디오에 채용되고 있는 DSP모듈에 비해 가격이 30~40% 가량 저렴해 중저가 카오디오에도 서라운드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올 매출 1천3백억원 목표

태광산업

태광산업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오디오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태광산업은 올해 오디오사업 부문에서 9백억원, 기타사업 부문에서 4백억원 등 총 1천3백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이같은 매출목표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요침체로 경쟁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디오 부문에서는 수요침체로 자가판매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국내 가전업체들을 대상으로 OEM방식의 제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한 대다수 가전오디오업체들이 환율급등으로 중국에서의 오디오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기업으로 거래처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대우전자에만 하이파이오디오를 공급해 왔던 태광산업은 최근 LG전자에 4단 분리형 고급 오디오 1개 모델을 OEM 방식으로 공급한 데 이어 그 모델수를 늘리는 등 국내 업체들과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정밀 CNC장치 독자 개발

한국산업전자

공작기계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고정밀 컴퓨터 수치제어(CNC)장치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산업전자는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원격리에 있는 공작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고정밀 CNC장치(모델명 WIN 300)를 독자 개발, 시판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6월부터 18개월간 총 10억원을 투입해 개발에 성공한 이제품은 일반 CNC장치가 공

작기계 주축 회전시 속도만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주축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모터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서보제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작기계에 대한 정밀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32비트 고속 CPU를 채택하고 컴퓨터와 공작기계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용포트를 설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원격리에서도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작업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주요 핵심부품을 소형화해 기존 제품에 비해 크기를 50% 정도 줄였으며 주요 기능별로 각각의 기판을 제작해 제품 개량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국내 작업환경에 알맞도록 설계돼 있어 작업 효율이 우수하다고 이 회사측은 설명했다.

1.0mm 피치 FPC 커넥터

한국몰렉스

한국몰렉스가 프린터 주기판과 프린터헤드를 연결하는데 쓰이는 1.0mm 피치 연성PCB(FPC)용 커넥터를 국산화했다.

한국몰렉스는 프린터·카메라·VCR·캠코더·CD롬·DVD 등의 제품에서 1.0mm 피치 제품의 수요

가 늘면서 수입판매보다 국내생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금형 설계는 물론 사출·프레스 등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한국몰렉스는 이 제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제품보다 20% 이상 가격을 낮췄으며 45일에서 90일이 걸리던 공급기간도 길어야 30일 정도로 단축했다.

한국몰렉스는 인청동과 유리섬유를 함유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일종인 PBT를 각각 핀과 하우징의 재료로 사용하고 3핀에서 30핀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을 갖춘 이 제품을 자동삽입과 수동삽입하기 위해 각각 돌기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모두 월 70만개씩 생산할 계획이다.

14.1인치 TFT LCD 개발

현대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현대전자가 노트북PC용의 패널로 최대 크기인 14.1인치 XGA급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를 개발, 오는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화면 후백에 대한 광투과량 비율을 2백대 1로 향상,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화면 왜곡현상을 대폭 개선했는데 이 제품의 화면크기는 300.5×227mm이고 두께 7mm, 무게 600g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13.3인치급 제품에 이어 14.1인치급도 개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함으로써 대형 노트북PC의 시장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디스플레이 섹터 연구소를 설립하고 오는 99년부터 시장이 형성될 데스크톱용 LCD모니터 시장에 적극 대응키 위해 올해안에 15, 17인치 제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통신용 광부품사업 매각 추진

현대전자

현대전자가 통신용 광부품 사업을 매각한다.

현대전자는 최근 IMF환경에 따

른 반도체부문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리콘 반도체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한 방침을 수립, 화합물 반도체 사업부문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인수업체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키로 한 것은 경기도 이천 공장 소재의 광소자 전용 제조(FAB)·테스트·패키지 장비 일체와 관련 연구인력 20여명 등 통신용 광소자 사업부문 전체다.

현대전자는 지난 94년부터 통신용 광부품 개발을 진행, 현재 155Mbps·622Mbps급 광송수신 모듈 및 파장분할다중방식(WDM)의 20Gbps급 광송수신 모듈 등을 개발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통신용 레이저 다이오드(LD) 및 포토 다이오드(PD)칩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전자의 한 관계자는 「현대전자의 광부품 사업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장비와 기술을 함께 인수해 지속적으로 광부품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물색중」이라며 「현재 몇개업체와 인수조건에 대해 협상중이며 올 1·4분기안에 인수업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